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17일) 2023년 3월 8일 수요일



**홍매화 봄 기별** 기별이 왔다. 저만치 봄이 오고 있다고 통도사 홍매화가 먼저 와 기별한다. 경칩을 앞둔 3월 2일 영각 앞에 선 홍매화가 활짝 피었다. 봄, 설레는 이름을 붉은 꽃잎에 매달고 힘겨운 오늘을 위로한다. 따뜻한 봄이 또 오고 있다고, 저만치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내일은 다른 하루가 될 거라고, 붉게 기별한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영축산서 '법화경' 가르침 이어가다

##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印영축산서 기도법회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 당시 장엄함 뒤로**
**한걸음씩 환희의 발걸음**
**영축산 향실서 전법 다짐**
**〈법화경〉 낭독, 축원 진행**

'부처님께서 영축산 설법단에 오르시자 1250 비구승가가 자리를 잡았다. 천상의 보살과 신장들까지 내려와 모여 들었으니 그야말로 장엄함을 이뤘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영축산은 신령함과 장엄함으로 불전에 전해진다. 수없이 많음을 의미하는 1250명으로 묘사된 비구스님의 수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장엄함이 느껴진다.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말하는 그곳에 순례단이 당도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이 2월 25일 법왕의 도시라 불렸던 마가다국의 수도 라지기르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포교를 다짐, 또 다짐했다.

이날 순례단의 행선은 조금 일찍 시작됐다. 순례단 개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량석 이후에 움직여달라는 회주 자승 스님의 말이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 서둘러 행선 준비를 마쳤다. 그 이유는 이날 행선의 목적지가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법을 펼치신 영축산을 비롯해 교단이 일어난 최초의 도량 죽림정사 등이었기 때문이다.

20여 km를 걸은 상태였지만 순례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마을과 마을을 걸으며 받았던 환영과 목도했던 불심의 가능성이 옛 불교의 중심지 라지기르에서 더 확연히 확인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왕사성으로 흔히 불리는 라지기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영산회상'의 영산이 바로 라지기르 그리드라쿠타(영축산)이기 때문이다. 또 최초의 불교사원이라 할수 있는 베누바나비하라(죽림정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있는 스라바스티와 더불어 부처님 일화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큰 성문이 36개에 달했다는 왕사성, 라지기르에는 성벽만이 남아있고 영축산만 외로이 그 영광을 간직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2월 25일 영축산에 올랐다. 영축산 향실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예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라지기르는 부처님이 마지막 여행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생애 마지막 여행으로 라지기르를 출발해 바이샬리를 거쳐 케살리, 쿠쉬나가르로 떠났다. 그렇기에 라지기르는 살아있는 부처님의 역사 그 자체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수많은 대중이 모였다는 그 곳은 독수리를 닮은 바위와 단이 남아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불자들이 부처님이 설하셨다는 자리에 올린 꽃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순례단은 그 당시를 회상하듯 영축산 향실에서 〈법화경〉을 읊었다.

"단지 방편으로 갖가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니, 불자가 자기에 맞는 도를 행한다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대중을 위해 이 법화의 가르침을 두루 설해야 하느니라."

이날 이후 순례단의 남은 여정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향해 가신 길과 닮아있다. 순례단은 2월 26일 사리풋다와 마하목갈라나의 고향이자 옛 스승들의 목숨을 건 구법 흔적이 남아 있는 날란다 대학을 지나 3월 1일 유마거사 일화가 전해지는 바이샬리, 여성 출가 상징 대림정사에 도착했다. 여기서 다시 길을 떠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쉬나가르로 향한다. 〈관련 특집 4 · 5면〉

## 韓中日 불교 교류 3년 만에 재개된다

9~10월 봉은사서 한중일 대회
6월 중 금산사서 한일불교대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의 교류가 다시 재기될 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이사회와 제59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종단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9~10월경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대회에서는 학술대회와 세계평화기원법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한중일 불교계는 불교우호교류대회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발원 등을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중국 주해에서 열린 제22차 대회 이후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2020년 열려야 했던 제23차 한국 대회도 3년동안 순연됐다.

종단협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4월 24~26일 서울에서 한중일 예비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비회의에서는 대회 일자와 장소 주제, 참석 규모, 소요 경비 등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종단협 사무처는 대회의 진행을 위해 중국 · 일본 국제교류 전문 위원단을 구성 · 운영키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진우, 이하 한일불교교류협)도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예산과 사업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연기해온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개최된다. 6월 12~14일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열리는 대회는 '한일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하며 양국 대표단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 및 유골봉환 위령제가 봉행되며 학술강연회 및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40주년을 기념하며 식수와 회고 책자 제작, 사진전도 구상 중에 있다.

국제교류와 문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류사업이 열린다. 7월 말~8월 초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교류대회에서는 임제종 건장사, 일련종 지상본문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신성민 · 임은호 기자**


# 대행선연구원
#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0-10 대행선연구원

**제6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5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4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3. 3. 18.(토) 13:30~18: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현장참석 및 유튜브 생중계)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 **좌장** :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 □ 제1주제 : 『논궤』(論軌, Vādavidhi)는 외도의 궤변인가?
    - 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 -
    **발표** : 동광스님(동국대)
    **논평** : 1. 권서용(부산대) 2. 강형철(동국대 wise캠퍼스)
  - □ 제2주제 :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 대행선사 '게송, 선시'의 문학적 탐색 -
    **발표** : 김종진(동국대)
    **논평** : 1. 백원기(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2. 하정수(동국대)
  - □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 : 진주지원
    **발표** : 혜근스님(진주지원장)
    **제목** : 혜근이 받든 대행선사의 가르침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